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안톤 솔츠



서양에서 '도그 데이즈(dog days - 직역: 개같은 날들)'는 여름 중 가장 덥고 습기가 많은 날을 뜻한다.

는데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주저하며 얘기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다.

복날과 개고기

이런 날씨와 맞서기 위해선 산으로 여행을 떠나 시원한 개울가 다리 밑에 누는 게 상책인 듯하다.

복날과 개고기... 개를 먹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다.

그렇시랴?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개 같은 날들'이란 의미는 한국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

가를 먹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다.

그런데 들어 부쩍 나의 절친한 친구들이 함께 영어로 '도그(dog-개)'를 먹으러 가고 싶은지 물어왔다.

가를 먹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다.

기고



손영호

'힐링(healing)', 을 휴가의 키워드다. 최근 힐링이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나면서부터 힐링 카페, 힐링 푸드, 힐링 뮤직 등 무조건 '힐링'을 붙여야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름은 자연이 살아있는 농촌에서

다움을 감상하고 소문난 맛집의 음식만 먹고 돌아오는 단순한 여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힐링여행이다.

다. 또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발굴·육성하여 농촌체험관광을 산업화하는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방송국의 '힐링캠프'는 출연자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하기 쉽지 않았거나, 숨기고 싶었던 부분까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 스스로에게는 치유와 극복 그리고 시청자에게는 친근감을 준다.

최근 농림식품부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올 해 여름휴가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87%가 농촌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경우 도내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은 총 126만명에 이르고, 소득은 131억원으로 집계돼 마을당 평균 약 1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관련 자료를 보니, 작년 여름 휴가 여행의 트렌드는 '걷기와 체험', '친환경' 그리고 현지인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 이렇게 3가지였다.

최근 농림식품부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올 해 여름휴가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87%가 농촌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촌은 도시민에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휴양지로서 국민정서 순화와 생태계 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업인이 혼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현대인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소문난 맛집의 음식만 먹고 돌아오는 단순한 여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힐링여행이다.

이런 정책의 배경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농촌을 지속 유지하고, 농업소득 만으로는 개방화 시대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 도에서는 마을단위로 사무장 채용을 지원해 농촌체험마을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올 여름휴가 기간 동안 주차장과 마을 주변 환경정비는 물론 민박시설 청결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기고



문태휴

장마가 끝나자 연일 짙은 안개가 이어져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발대위에 쓰러지는 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폭염·벌쏘임 환자, 119에 즉시 알려주세요

고들이 속출하였다. 세계적으로 폭염에 의한 대표적 피해사례는 2003년 8월에 있었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폭염을 들 수 있다.

상이 발생 시 119에 신고하여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조기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국 대부분이 24일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이날 오후 7시경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찜의 따가 작업을 하던 노부부가 사망하였고, 오후 2시쯤 충북 옥천군 청성면의 모 교회 앞에서 집조를 베타던 이 교회 목사 김모 씨(남, 59)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오후 6시 55분경에는 전남 해남군 삼산면의 한 뒷밭 인근에서 이모 씨(여, 83)가 숨져 있는 것을 딸이 발견해 119에 신고하는 등 폭염으로 추정된 사

폭염특보에 따른 사고 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사병과 같은 열 손상 환자 발생과 벌 쏘임 환자의 경우 과민성 쇼크(anaphylaxis shock) 발생으로 호흡기의 혈관 부종으로 기도 폐쇄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등이 있다.

말벌의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독성이 강한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들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서는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대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농사일을 나가거나 체육소모가 많은 외부활동, 격렬한 체육행사, 음주 후 차량 내 취침 등을 삼가고, ▲몸에 이상이 발생하면 시원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소금물 또는 이온음료를 마셔 탈수를 인한 증상을 최대한 완화시켜야 하며, ▲몸에 이

또 벌 쏘임 환자 발생 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에피네프린 등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고湯이 빠르게 죽었다면 개를 먹는 것이 수척스럽게 여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나 다른 외국 기관이나 단체들이 개고기 소비를 금지토록 하려는 요청이 있어왔음을 기억한다.

그런 요구는 아마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항의와 격노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동물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고래를 포획하는 것이 광희한 일이 되자 포경마차와 특수한(?) 식당의 테이블 위에 그 고기들이 놓여 있게 되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몰염치’ 진보당 광주서도 탈당 이어져

통합진보당의 부정·폭력사태와 당권파, 비당권파 간의 막가파식 갈등을 바라보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눈길은 싸늘하다.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진보당이 이석기·김재원 의원에 대한 처리 등 혁신적인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으로 고사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임 전 위원장은 국민참여당 출신으로 당내 비당권파로 분류된다.

지난 4·11총선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과 16% 이상의 지지를 보냈던 지역민들로선 진보당의 위기에 착잡한 심경 뿐이다.

스마트폰 어플 성매매 도구로 악용되다니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스마트폰이 성매매 도구로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동 음란물은 5세로 추정되는 여자 아이가 인니로 보이는 10대 소녀의 음란행위를 돕는가 하면 직접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아 충격적이다.

광주경찰청은 1일 회원 900만 명인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수사한 결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하거나 유인한 사례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아동·청소년몰 등 모든 유형의 음란물 단속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플은 회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블로그 형태로 운영돼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통영의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이번 단속은 만시지탄이나 현영할 만한 일이다.

경향에 따르면 이 어플은 회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블로그 형태로 운영돼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뉴질랜드 카누 대표인 마이크 도슨은 29일 열린 슬라럼 예선에서 2초 페널티를 두번 받았는데 이중 하나가 올림픽 심판으로 활약중인 마이크의 어머니인 케이가 부과해 귀감이 됐다.

無等鼓

스포츠 개막 행사에는 선수단과 심판 선서 순서가 있다.

을 맞아 승리를 눈 앞에 뒀지만 심판에 의한 '멈춰버린 1초'로 4년간의 노력이 날아가 버렸다.

신뢰일은 심판



신사약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반대로 뉴질랜드 카누 대표인 마이크 도슨은 29일 열린 슬라럼 예선에서 2초 페널티를 두번 받았는데 이중 하나가 올림픽 심판으로 활약중인 마이크의 어머니인 케이가 부과해 귀감이 됐다.

신뢰일은 심판... 심판들의 무책임한 판정에 4년에 걸쳐 피와 땀으로 준비한 선수들의 꿈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심판들의 무책임한 판정에 4년에 걸쳐 피와 땀으로 준비한 선수들의 꿈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인량은 30일 캔싱 여자 예예 개인전 준결승에서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

심판들의 무책임한 판정에 4년에 걸쳐 피와 땀으로 준비한 선수들의 꿈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Table with columns for publication name,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